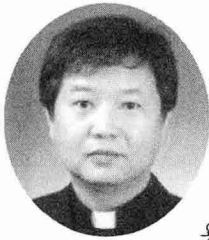


가정호스피스 사업에 기대하며

이승찬 신부

가톨릭중앙의료원 원목실장 · 지도신부



오 늘날 우리는 더 이상 호스피스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던 초기에는 먼저 호스피스란 용어를 해설하고 그 활동을 설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호스피스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이들이 호스피스 활동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호스피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주신 많은 분들 덕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호스피스라는 말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부정적으로 비취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극적인 치료를 멈추고 호스피스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에도 선뜻 추천하기를 꺼려하거나, 임종자 뿐만 아니라 가족도 이 도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호스피스 활동이 마치 우리가 해야 할 의료적인 조치를 중간에서 포기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호스피스 활동의 주된 영역이 병동이나 시설 중심이었기 때문은 아닌가 여겨집니다. 물론 병동형이나 시설형 호스피스 또한 여러 가지 장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병동형 호스피스나 시설형 호스피스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이는 임종자나 가족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면에서 임종자와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익숙한 생활공간 밖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임종자는 심리적으로 자신이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측면에서 보면 멀리 밀어내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호스피스 활동에 있어서나, 호스피스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활동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익숙한 생활공간에 머무를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배려와 위로를 받으면서도 방문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호스피스 연계망 구축이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공간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호스피스 활동이 가능한 팀 구성원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적극적인 가정호스피스를 활성화 하기위해서 가정간호 연계망을 활용하고 본당의 의료사목 단체와 협력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가정호스피스 활동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간호와 가정호스피스가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하기보다 함께 연대하여 나아간다면, 두 활동 모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임종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서 인간답게 살다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정호스피스 활동에 더욱 정진해 나아가도록 합시다.